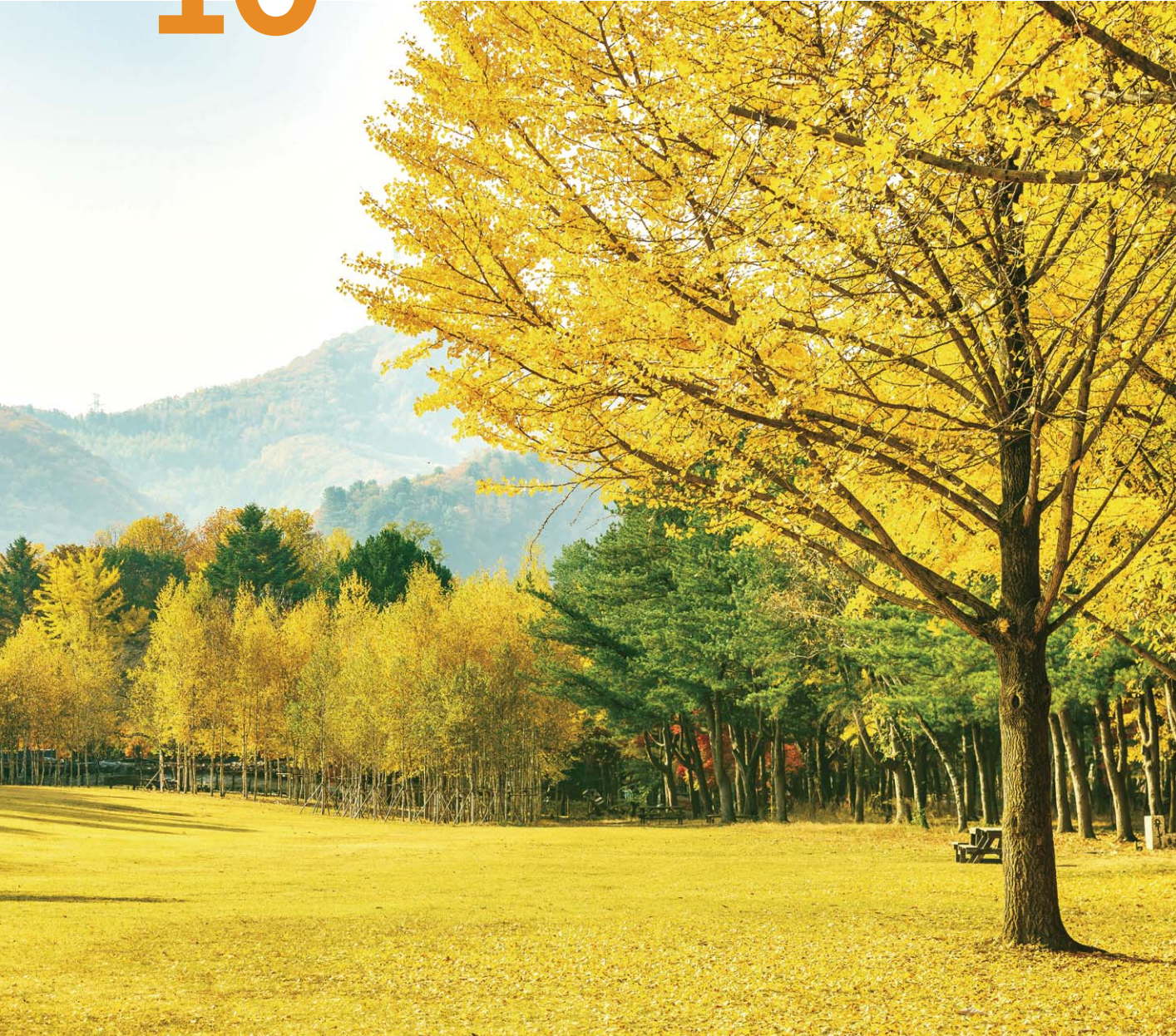


만남

10

2022

통권 584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사회봉사의 날, '내 양을 먹이라' 주제로 행사 열려

이 땅의 어려운 자들에게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는 사회봉사부(부장 이흥노 장로)가 8월 28일 주일을 <사회봉사의 날>로 정하고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17)' 주제로 사역박람회와 세미나를 열었다. 베다니광장에서 열린 사역박람회에는 사회봉사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월드비전 외 2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아코니아 실천 방안'을 주제로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김한호 목사(춘천동부교회)가 강연하고 세 분의 교수가 좌장, 논찬자로 나와 봉사의 실제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찬양예배는 강사 이승열 목사(한국기독교사회봉사연구소 소장)가 '디아코니아 신앙'을 주제로 설교하여 성도들에게 세상에 소외되고 약한자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일깨웠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교회표어

행진하여 가라
(신명기 1:6~8)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운전을 배웁시다 김운성

- 다음세대** 04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길’ 이성연
06 나는 누구인가요? 이민하
08 하나님 안에서 ‘원팀’이 되는 기적 김천경
10 전신갑주를 입고 행진하자! 박희정
12 어느 곳에 있던 말씀으로 행복합니다 장현수
13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길성은
15 하기선교봉사, 주러 갔다 받고 옵니다 여태공
16 모든 것 준비해 두신 여호와이레 안유환
17 결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김천곤

- 영락의 울타리** 20 나의 두 번째 산상기도회 김재훈
22 좋은 상담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발견 강승훈
24 부르신 이유 김현우
26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이시훈

- 문화광장** 29 노래로 하는 경건 훈련 백정진
32 새한글성경 신약·시편 소개 이두희
36 대동강변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
42 늘 작은 것 하나가 날 버티게 했다 황재영
44 아름다운 노래 유순희

- 교회소식** 44 권사회,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 외
51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52 10월 목회력

표지설명



14만평의 넓은 섬으로 천혜의 대자연, 남이섬
가를 단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감사와 회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운전을 배우시다

김 운 성 위임목사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19~20)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근사한 최고급 자동차를 자랑했습니다. 디자인이며, 성능,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장치가 최고였습니다. 가격도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주인은 “누구든지 타세요. 타 보셔야 아시지요. 이 차는 방음도 잘 되어 바깥 소음도 거의 안 들려요”라고 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차에 탔습니다. 주인은 으스스대며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당황하면서 말했습니다. “아, 지금 제게 키가 없네요. 아까 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가지고 가버렸네요. 어찌지요?”

둘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근사한 최고급 자동차를 자랑했습니다. 디자인이며, 성능,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과 안전장치가 최고였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자동차 주인은 “누구든지 타세요. 시승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차에 탔습니다. 주인은 “이 차는 방음도 잘 되어 바깥 소음도 거의 안 들립니다”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시도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연료가 없네요. 깜빡 잊고 주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태워드리지요”라고 했습니다.

셋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역시 근사한 최고급 자동차를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좌석에 앉아 보세요. 편히 앉아서 여기저기 살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재력과 안목에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저, 그런데 괜찮으시면 우리를 한 번 태워 주실 수 있나요? 앉아 있지만 말고 달려봐야 정말 좋은 차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깥 소음도 거의 없다면데요. 자, 어서 한 번 몰아 보세요” 그랬더니 자동차 주인은 얼굴이 벌겋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달릴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잘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서 말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운전을 할 줄 몰라요. 이 차는 마당에 세워 놓고 바라보는 용도랍니다.”

이 이야기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달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열쇠가 없거나, 연료가 없거나, 운전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이유가 어떠한 현재 시점에서 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경 대상일 뿐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이 이야기들은 우리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보기 좋은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중조부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님만 일곱 명이고, 장로님이 여덟 명이예요. 우리 집안에서 세운 개척교회가 다섯개나 되지요. 집안의 아이들도 다 학생부, 대학청년부에서 임원이고, 회장이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 남편은 교회 살림을 다 맡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이들이 교회마다 몇 분씩 있습니다. 최고급 자동차처럼 최고 수준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릴 수 있는가’입니다. 이처럼 훌륭한 신앙 배경을 가진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체험했을까요? 당면한 인생의 굴곡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이 있나요? 교회의 평안과 부서의 부흥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할 겸손이 있나요? 질병과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깊이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나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깊은 맛을 아나요? 예배의 감격을 알고 있나요? 언제나 누구에게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주님의 평안

과 기쁨이 얼굴과 언행을 통해 배어나나요? 세상이 어두워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자동차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는 커녕 비방했고, 그가 전한 복음도 불신했습니다. 바울을 거짓 사도 쫓으로 생각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직접 고린도에 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라도 달릴 수 없다면 폐차 직전의 달릴 수 있는 싸구려 차보다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습이 이와 같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위의 세 이야기에는 달릴 수 없다는 공통점 외에도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희망적인데, 부족만 채우면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키를 가져오면! 연료를 가져다 채우면! 주인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모두 달릴 수 있습니다. 폐차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하면 위용을 뽐내며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시다. 달릴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달릴 수 있도록, 그것도 부드럽게 잘 달릴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이가를 우리 모두 가벼운 복장으로 키를 손에 들고, 연료가 가득 채워진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읍시다. 그리고 익숙하게 드라이브를 즐깁시다. 영락교회라는 자동차, 우리 각자라는 자동차가 잘 달리길 기도합니다. **만남**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길’

이번 비전트립의 목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켜 온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3주 전부터 비전트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조를 정하고 조원과 조장을 뽑고 서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방문하는 전라남도 여수와 진도에서 여러 선교활동을 하신 손양원 목사님과 문준경 전도사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미리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 주일에는 파송식을 통해 성도님께 기도와 응원을 받으며, 우리의 다짐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드디어 화창한 날씨에 목사님의 기도로 은혜롭게 출발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여수의 애양원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일생과 남기신 자취를 보며 목사님께서 환자들과 약자들을 얼마나 사랑하

셨는지 알게 되었고,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안아주신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애양원의 뜻이 ‘사랑으로 양을 키우는 동산’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으며, 그곳 병원에 방문하여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비전트립 교재를 통해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 제목을 보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도 감사로 여기신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감사를 모르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여수 밤바다에서 바다의 시원함을 맘껏 느끼며 조별로 사진도 찍고 카페에서 즐겁게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위로의 사람 바나바’에 대한 큐티로 하루를 시작했고, 이후에 <나로호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우주선도 보고 우주선의 형

태, 원리를 배우며 그 속에서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주님이신 것이 자랑스럽고 기뻐했습니다. 숙소 도착 후 조별로 교제하는 시간에는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며 조원들과 더 친해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소금박물관>에 가서 소금이라는 작은 가루가 얼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염전 체험은 생각보다 무척이나 어려웠는데, 집에서 흔히 보는 소금을 우리가 먹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를 느꼈습니다. 점심을 먹고 <섬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일생을 배우며 그분의 사랑이 증도라는 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있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감탄과 놀라움과 함께 ‘나도 저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순교하신 분들을 떠올리며 7km를 걸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주변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희생하신 순교자들을 생각하며 걸으니 지금의 힘듦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서는 진정한 ‘The Road’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날 저녁 식사는 특별히 조원들끼리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우리 조는 애양병원에 다녀온 것을 바탕으로 식단을 짰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만든 미역국, 평범하지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두부구이, 계란말이 등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마지막 밤을 장식할 캠프파이어 시간에는 찬양하고 춤추며 즐겁게 시작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부모님의 편지’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는 부모님들의 편지를 들으니 첫 소절부터 코끝이 찡해졌고 눈물이 쏟아

졌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모르실 것으로 생각했던 제 속마음까지 다독여 주시는 부모님께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철없이 투정 부리는 아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키워주시는 부모님이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울고 있는 나를 선생님께서 안아주시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부모님의 사랑,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선생님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을 다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모든 일정 중에 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전트립을 통해 생각했습니다. ‘나도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돌아오는 날 아침 큐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비전트립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만난 믿음의 선배님들과 그분들이 걸어온 선교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우리 3박 4일의 여정은 절대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한 발자국 더 성장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을 전할 용기가 샘솟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남**



이성연
중등부 3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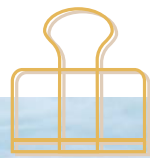
나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1학년 이민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고등부에서 제주도로 3박 4일간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번 비전트립을 가기 전에 유난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전트립을 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선생님들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말씀을 계속 들으며 더 크게 은혜받기 위한 일이라는 말씀을 한번 믿어나 보자고 마음을 다잡고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첫날 도착해서 바닷길을 걸으면서 대화도 하고 경치도 보았습니다. 넓고 푸른 하늘과 바다를 보면서 일상에서의 아픔과 힘들어 치유받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숙소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주

제로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17년 삶을 돌아보면서 저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여쭙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조금은 힘들었지만, <성산 일출봉>에 올라 일출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에 배를 타고 <우도>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한 바퀴 걸으면서 전날에 제게 주신 말씀인 요한 일서 4장 7, 8절을 묵상했습니다. 우도를 떠나기 전에 목사님과 묵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제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을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떠올랐고, 비전트립 출발 전까지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찢리기도 했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일몰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둘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날은 일정의 하이라이트로 제일 힘든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시가 조금 넘어서부터 <한라산>을 등반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등반하다가 조금 올라간 후부터는 혼자서 묵상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첫날 '내가 누구인지' 다루었던 내용과 둘째 날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교회에서는 신앙심 좋은 듯 행동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제 안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주의 영을 내 안에 들일 수 있기를 묵상하며 혼자 한라산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한라산을 등반하고 정상에 오르니 굉장히 뿌듯하고 비전트립 오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넷째 날에는 땅끝 마라도에 갔다가 서울을 향해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가기 싫었지만 다녀오고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갔다고 느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경험하

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가기 전에 겪었던 어려움만큼 누구보다 크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트립을 다녀오면서, 무엇보다 당장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준비되어있다는 것과 예수님을 저의 삶의 중심에 두고 주의 영이 제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지금까지의 삶 중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전트립을 통해 큰 은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부모님, 선생님,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이민하
고등부 1학년

하나님 안에서 ‘원팀’이 되는 기적

지난 8월 16일부터 3박 4일간 강원도 속초시 설악수양관에서 열린 <영락교회 축구교실 여름캠프>에 아이들과 함께 참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린 영락 축구캠프!! 우리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 대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영락 축구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축구캠프에서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팀이 되어 축구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했고, 나와 남편은 캠프 봉사자로 참여했다.

초·중등 아이들 25명과 목사님, 전도사님, 감독, 코치, 스태프 25명 등 총 50명이 교회에 모여서 김운성 위임목사님의 기도와 격려로 일정을 시작했다.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식료품을 가득 실은 봉고차가 먼저 떠나고, 우리는 45인승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한껏 기대를 품은 아이들은 왁자지껄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루한 줄 모르고 버스에서 열심히 놀면서 갔다. 설악수양관에 도착한 후 여는 예배에서 신주현 목사님의 ‘한 성령 안에서 한 팀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새기고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아이들은 세 개 조로 나누어서 섬길 조장도 뽑으며 조별 공동 연대 책임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른 아침 체조, 신발 정리, 말씀 암송을 마친 조부터 식사하기, 식사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하기, 먹을 만큼만 배식받고 남기지 않기, 먹기 싫은 음식들도 도전해 보기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부터 실천했으며 이에 더해 신앙과 스포츠가 어우러지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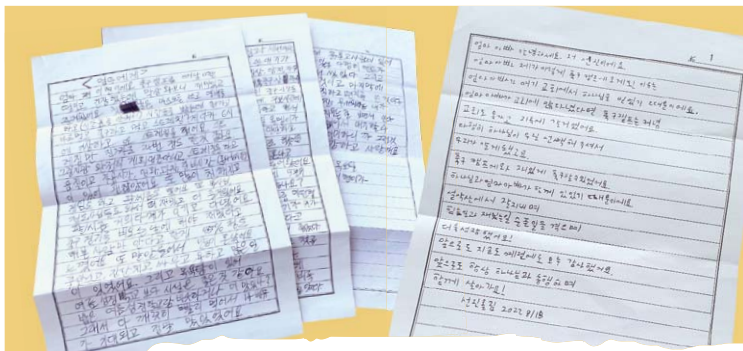


첫째 날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다. 한껏 기대감에 부푼 아이들에게 비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보슬보슬 내리는 비를 맞으며 아이들은 열심히 한 팀이 되어 뛰었다. 저녁에는 저녁 식사 후 김범준 교수님과 함께 축구 자세를 배웠고 축구 경기도 보고 레크리에이션도 하며 첫날을 알차게 보냈다.

둘째 날에는 비가 억수로 오기 시작해서 설악수양관 실내에서 축구 기술을 익히고 재미있는 게임을 했다. 저녁에는 은혜로운 수요일 예배 시간과 레크리에이션, 영화 <어쩌다 축구소녀>를 보며 축구에 흠뻑 빠졌다.

셋째 날에는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잔디가 매우 미끄러웠지만 역시나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 모두 열심히 달렸다. 오후에는 약간 서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추억을 쌓았다. 밤에는 부모님께 편지 쓰게 해서 봉투에 넣어 각자의 집으로 우편발송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

는데, 아이들이 열심히 쓴 편지를 살짝 엿보니, ‘축구 캠프에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 재미있는 게임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 단체로 혼나고 싸우기도 했지만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친해져서 좋았다, 기회가 오면 또 보내



달라, 비 오는 날 축구 경기가 재밌었다, 힘든 일, 재밌는 일, 슬픈 일을 겪으며 더 성장했다’ 등 축구 캠프를 만족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감사했다.

돌아오는 날에는 비가 심하게 내려 차도 많이 막히고 분주했으나 도착 후 아이들이 질서 있게 움직여 주어 수월하게 귀가 지도를 할 수 있었다. 이번 축구 캠프는 비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중간, 중간 비를 멈추어주시고 필요할 때 햇빛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했다. 가기 전부터 걱정했던 코로나19 이슈가 있었지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50명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은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잔디가 물을 가득 머금고 있어도, 해가 나면 나는 대로, 기온이 조금 낮아서 물놀이하기에 추워도 바다에 들어가 물놀이하는 등 매 순간순간을 즐겼다. 또한 축구 자체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한 팀이 되어 협력하는 방법,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나의 잘못은 다른 친구에게 폐를 끼칠 수 있고 다른 친구의 잘못도 우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연대 의식을 배웠다. 사실 고백하자면 별생각 없이 따라간 축구 캠프였다. 그러나 식사 준비와 수송, 빨래 등 여러 봉사 현장에 함께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아이

들 양말을 하나하나 애벌 빨래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삶을 생각했고,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했다. 또 20년 넘도록 한결같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 자리를 지켜 오신 감독님과 권사님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쳐 보였다.

평균 연령 75세의 권사님들은 ‘인제 그만 내려놓아야지’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시키시면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순종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신주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분들, 감독님, 코치님, 식사 봉사 권사님들, 조별 담임으로 봉사한 대학생 스텝들, 학부모 스텝들, 사진 기록을 위해 뛰어다니신 집사님, 그리고 설악산 영락교회 목사님과 사찰 집사님 등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One Team이 되어 돌아온 축구 캠프였다.

닫는 예배에서 박상엽 목사님이 말씀하신 ‘축구 캠프에서 인생 캠프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순간순간의 삶을 응원한다. 건강하게 한여름의 추억을 담고 온 축구 캠프, 내년이 또 기대된다. **만남**



김천경 성도
고양·파주교구

전신갑주를 입고 행진하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에베소서 6:13)

저 스스로 교사라고 소개하기가 조금은 어색합니다. 그런 제가 이번 수련회의 준비에 참여하여 일한다는 것도 부담과 무거운 짐이라 생각하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미세한 음성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미미한 존재야, 하지만 내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다’라는 든든한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사랑부 여름수련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처음 대면으로 진행되는 터라 모두가 긴장하

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장소도 처음 가보는 원주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이었으며, 일 때문에 사전 답사도 가지 못한 채 준비하려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변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한다는데, 마음속에서는 수련회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하며 서로 싸우고 있었지요. 사실 속마음으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지 말아야 한다’가 승리했습니다.

준비기도회로 시작한 7월!!! 목사님이 주신 일정표를 보니 ‘레크리에이션’과 ‘하나 되어 예배하라’ 두 코너를 친교부에서 맡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사랑부에서 친교부장을 맡은 저로서는 그 타이틀 때문에 더 크게 부담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게는 든든한 동역자가 많습니다. 나눔과 교제로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준비로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눔에 감사하고 코로나로 중단된 이러한 교제를 우리가 얼마나 원했는지 새삼 감사 또 감사로 준비하며 너무 기뻐합니다.

출발 전날 또다시 불어 닥친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진했습니다. 원주에 도착해 짐 정리하고 <여는 예배>를 시작하며, 선생님들은 자신이 속한 부서일 뿐만 아니라 멀리로 움직여야 해서 너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첫째 날에는 신문을 이용한 게임으로 레크리에이션을 마무리했습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부딪히며 서로 웃고 즐기며, 큰 사고 없이 하루 일정을 보내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날 ‘하나 되어 예배하라’ 주제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캠프파이어를 진행했습니다. 둘째 날 목공으로 십자가 촛대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각자 만든 작은 십자가 촛대를 커다란 십자가에 하나하나 모으면서 캠프파이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불 꺼진 강당에, 조그마한 불빛이 모여 커다란 십자가 불빛을 만든 것

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이런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던 저를 깊이 반성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이런 기쁨과 은혜를 못 느꼈을 텐데 하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은혜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부 여름수련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부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만남**



박희정 권사
인천교구
사랑부 교사



어느 곳에 있든 말씀으로 행복합니다

지난 7월 20일~22일, 2박 3일간 16명의 벗님과 네 분의 교역자님, 지도위원 한 분, 총 21명이 충남 보령 <신덕교회>로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덕교회를 섬기고 농촌 봉사활동을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박 3일 동안, 신덕교회 인근에 있는 일손이 부족한 시골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마을 곳곳에 있는 콩밭과 배추밭에서 일했습니다. 콩밭에 깊게 박혀 있는 쇠말뚝들을 뽑고, 수확하고 남은 콩 가지들을 정리해서 모았습니다. 배추밭에서는 온갖 벌레와 지렁이들이 꿈틀대는 진흙에 뒤엉킨 폐비닐을 수거하고 정리했습니다. 농사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벗님들과 함께였으므로 힘든 것도 이겨내고, 또 이웃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에 같은 팀원들과 나눔을 했던 것이

특별히 기억에 남습니다. 2박 3일간 봉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은 무엇이였는지, 각자의 연약한 부분 등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원들



장현수 성도
대학부
모세마을 헤세드47기



의 깊은 나눔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서로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들이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번 봉사를 통해 신앙에 관해 다시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피아노와 기타만으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도 감동했으며, 평소에 내가 처해있던 상황에 불평과 불만을 품었었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안에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2)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 있든 여호와와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음을 모든 벗님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기쁨을 사모하며 날마다 말씀 읽고 기쁨으로 묵상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신 지도위원들, 벗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팀원들도 각자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을 텐데, 힘든 내색 없이 웃으며 격려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두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함께해준 팀원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주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대학부는 8월 11일~13일 영락기도원에서 ‘Go Back To The Future’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학생회 친구들과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 준비로 지치기보다는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동행 해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

었습니다.

저녁 집회는 저에게 이번 여름 수련회 중 가장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 모두 <라이트 하우스 서울숲>에서 사역하시는 임형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자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나의 전쟁터이다.”라는 임형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평소 저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겠으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간절하게 신앙 고백했지만, 막상 일상의 삶에서 힘든 상황을 만나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장에 주어진 상황만 해결하기 바빴습니다. 그랬던 저를 돌아보니 주일날 예배드릴 때나 수련회에서 집회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형규 목사님의 설교 후에 벗님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는 이전보다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마커스의 찬양에는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며 가사를 묵상할 때, 삶의 모든 문제가 나를 힘겹게 하더라도 나의 소망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수련회 시간에는 제가 맡은 역할을 잘 해내야 하고, 수련회를 무사히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분주했고 정신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수련회에서 하나님과 잘 만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수련회를 다시 떠올려보면 수련회에서 들었던 말씀과 뜨겁고 간절했던 기도 시간 등이 일상 중에도 계속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

에게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는 수련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저의 일상에서 지속하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고생했던 학생회 벗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힘쓰며 은혜를 나눌 동역자인 <WITH 학생회>가 없었다면 이만큼 잘 해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해 잘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만남**



길성은 성도
대학부 에스더마을
학생회 봉사양육팀장

하기선교봉사, 주러 갔다 받고 옵니다

코로나19로 멈추었던 하기선교봉사를 3년 만에 많은 분의 기도와 관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진행했습니다. 44차 하기선교봉사는 청년부가 기획했지만, 영락교회 전체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의 관심과 사랑, 기도와 헌신으로 은혜 안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영락교회에 출석한 지 5년이 된 저에게 하기 선교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많은 멘토님이 하기 선교를 말씀하실 때 왜 것처럼 하기 선교 참여를 독려하고 추천하시는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기 선교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해보니 이제는 알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은혜받는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지요! 하기선교봉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많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차편이 부족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듯,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쓰임 받아 너무 마음이 좋다며 선뜻 자신의 개인차량을 제공하여 수송을 도와준 새신자 형제, 그리고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 보았던 혈기 왕성한 중학생들을 통해 저의 지난 학창 시절과 주일학교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된 지금, 저의 어린 시절을 만난 것 같아서 더 진심으로 기도할 마음과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본부교회에서는 새벽예배 시간에 소리를 지르면서 방해하는 40대 여성 때문에 놀라는 일도 있었

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많아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들께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풀어주실 때, 그분의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씩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치유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전달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했을 텐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맡겨진 자리를 회피하지 않은 채 끝까지 지키면서 뜻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던 동역자들의 모습도 마음 깊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번 하기선교에서 회계를 맡았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원래 회계할 게 많은 사람이 회계 맡는 거야~”라며 농담하셨는데, 정말 하기선교봉사를 통해서 제가 아직도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 신뢰하지 못했는지, 많이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이 지난 뒤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후배 청년들의 <하기선교봉사>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선배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



여태공 성도
청년부 광야소리
청년회 회계

모든 것 준비해 두신 여호와이레



하기 선교는 저에게 있어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만나 주셨던 곳이 바로 하기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추억을 회상하며 영락교회에서 처음으로 하기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하기 선교를 가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재개한다고 하니 기대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는 팀장으로 섬길 기회도 주셔서 기쁜 마음과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을 품고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여호와이레’였습니다. 주신 마음 그대로 준비 과정에서는 수많은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하기 선교 중에는 이곳에 다 적기 어려울 만큼 많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선교팀을 섬긴다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약속 덕분에 저에게 준비하는 기간은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피곤한 날의 연속이었지만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것 하나만으로 제게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두 달간의 준비 기간을 보내고 8월 16일 충남 보령으로 출발했습니다. 첫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지역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마을은 조용했고 전도 대상자들이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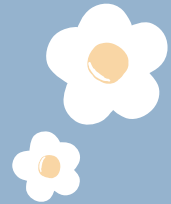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둘째 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으나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사역하는 5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의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 기간의 덥고 습한 날씨에 힘들 법도 한데 모든 사역 담당 팀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벽화팀은 벽화 그리는 일에, 어린이 성경학교팀은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에, 마을잔치팀은 준비한 공연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각자 시간이 될 때마다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드리는 모습은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 앞마당을 보며, 이러한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니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박 5일의 하기 선교 일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준비부터 사역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들을 보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번 하기 선교도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고 이를 선물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만남**



안유환 성도
청년부 광야소리
하기선교 성주성광교회팀 팀장

결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친구 자녀들의 결혼 소식이 잦은 걸 보니 결혼하기 딱 좋은 계절인 듯하다. 결혼은 본인뿐 아니라 결혼으로 얻게 된 자녀의 삶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생 최대의 선택이다. 나이 들어보니 젊은 시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의미가 더더욱 크고 중요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대학부에서 헤세드(찬양팀)를 맡은 나로서는 이 주제(결혼 및 그리스도의 가정)에 대해 대학부 벗님들과 더 많이 대화할 필요성을 느낀다.

하나. 결혼과 그리스도의 가정: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가정은 서로 도와 믿음이 성숙하도록 만들어가는 훈련장이지만 세상이 말하는 가정은 인간적 행복을 구현할 치열한 전투장이다.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이렇게 다른 것을 알

지 못하면 믿는 이의 가정과 세상의 가정을 구분하기 힘들다.

결혼하는 청년들과 이들의 부모들은 그리스도의 가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려 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견해와 가정의 운영 방식을 하나님께 배워야 할 것이다. 배우자로 만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것을 청년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훈련장인 가정은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상의 천국이며, 믿음의 성숙에 따라 점점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곳이다.

둘. 배우자: 영원한 나의 반쪽과의 만남

결혼은 욕망을 채워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훈련하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살아갈 배우



곰들이들의 아름다운 결혼(왼쪽)과 이들이 이룬 가정.
김천곤 집사의 딸 김인경 성도의 작품이다

자를 만나는 것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지혜로운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세상은 “혼자 외롭게 살 것인지, 결혼하여 지겹게 살 것인지” 선택하라는 여론을 조장한다. 결혼을 아름답게 묘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배우자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창세기 2:23)이다. 배우자는 나를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도록 하는 성화의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최상의 존재이다. TV 프로그램 ‘동상이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히려 완전히 다르기에 서로 완벽하게 맞아지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존재이다. 이런 인식이 없으면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 채 끊임없이 고쳐야 하거나 비판할 대상이 된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니라”(창세기 2:24~25)고 말씀하신다. 부모를 떠나

또 다른 자기를 찾아가는 결혼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둘은 한 몸이고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이다. 한 몸인데 뭐가 부끄러울까? 세상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교집합을 찾지만, 성경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합집합을 이야기한다. 상대방을 또 다른 나로 인정하면, 다름이 정상인 두 사람이 합집합을 이루어 가면서 사랑과 인내의 크기가 놀랍도록 커지며 성숙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배우자를 나처럼 만들기 위해 고치려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리스도의 가정을 추구하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영락의 젊은 식구가 많아지기를 선행으로 바랄 뿐이다.

셋. 가정의운영법칙

우리 가정은 온전한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마치 전기가동차는 전기를, 휘발유 자동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운행되듯이 우

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운영해야 올바른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룬다. 세상의 가정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목표로 하는 인생 완주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까지 훌륭한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서로 도움을 주는 사랑의 연습장인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듯 사랑과 오래 참음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가정 안에서 자녀 또한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란다. 자녀가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빠의 무관심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으로 잘 된다고 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오늘에 적용하면, 아내와 남편은 서로를 존경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일 것이다. 존중과 사랑이 유지되는 가정은 풍요로워지며 부부를 축추게 한다. 성경에 해법이 있는데 세상에 무슨 도움을 구할 것인가? 이 비밀을 일찍 깨달을수록 가정은 견고해질 것이다.

넷. 사탄의 방해

사탄은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 결혼 무용론, 혼자 사는 삶에 대한 미화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결혼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한다. 결혼이 재정을 고갈시키거나 개인의 자유와 정체성 실현을 방해한다는 잘못된 견해를 주입해서 결혼을 머뭇거리게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닌 내가 원하는 가정을 꿈꾸게 하여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왜곡시키기도 하는 듯하다. 우리의 가정은 사탄으로부터 공격받는 영적 전투의 장이므로 어떻게 대

처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기도 한다. 사탄의 시도에 동조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믿음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섯. 맺음말

나는 젊은 시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영락교회 대학부에서 배우자를 만났고, 가정을 이룬 지 34년이 되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로, 배우자의 기도 덕에 조금씩 믿음의 용사가 되어가고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어찌 믿음의 눈이 아닌 세속적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당연히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여,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한다면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배우자의 구원을 이루는 쾌거를 이루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즐기는 삶의 여정을 완주하는 영락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란다. 나 또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 우리 부부의 지혜와 신뢰, 서로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할지 기대가 된다. **만남**



김천곤 집사
강남교구
대학부 지도위원

나의 두 번째 산상기도회

지난 여름 62회 산상기도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영락교회에 와서 두 번째 산상기도회였습니다. 특히 제가 목양부를 섬기고 있어 진행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기에 더욱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신년기도회와 산상기도회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영락기도원에 올라가지 못하고 본당에서 제한된 인원만 참석할 수 있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산상기도회 역시 여전히 영락기도원에는 가지 못했지만, 방역 정책이 작년과 달라져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처한 상황과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현장과 온라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산상기도회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면 강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사랑

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것이 불안하고 위험하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권면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나의 일방적 믿음으로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한 것은 아닌지 회개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도 회개했습니다.

이에 더해 묵상하기로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떠한 여건이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삶의 방향을 계획하고 이루도록 힘써야 하지만, 그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신 잠언 말씀을 되새기며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합니다.



김재훈 전도사
강남교구
목양부

성경 선지서의 말씀에는 문단이 시작될 때마다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여’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



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산상기도회를 통해,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과 몸을 움직여 예배 자리, 말씀 자리,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흠뻑 빠질 때 내 영혼을 위한 영적 처방과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삶과 인생과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 우울함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과 평안이 나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여 치유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했습니다. 물론 말씀이 임한다고 해서 만

사가 생각대로 형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까지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네 뜻대로 상황에 맞춰 너의 지혜를 믿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이 이기는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저와 함께 영락의 성도님들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과 결단, 그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와 지혜,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과 열정, 그리고 용기를 내는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만남**

좋은 상담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발견

밝고 건강한 신앙을 꿈꾸는 명랑상담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내가 아픈 것을 의료진들이 잘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와 소통하기 위해 통증의 정도를 1~10단계로 나누어서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수치로 표현하게 합니다. 주관적이고 단순한 방법이지만 타자(他者)인 환자를 이해하는 최소한의 시작점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면서 공감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상담 자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상담자는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자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를 끊임없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상담자와 내담자를 연결하는 두 개의 시선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강승훈 목사
강북·도봉교구
상담부

핵심감정

대상을 이해하는 첫 시작은 말과 행동입니다. 대체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의도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상담에 있어 세계관과 비슷한 ‘핵심감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핵심감정은 한 사람의 사고와 정서를 지배하는 중심 감정입니다.

핵심감정은 어린 시절 형성되며 무의식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고 현재의 말과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상담 자리에서 다루는 핵심감정은 불안, 두려움, 화(분노), 소외, 슬픔, 공포, 외로움, 그리움, 두려움, 적대감, 열등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핵심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기술과 능력(방어기제)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핵심감정을 자신과 내담자에게서 제대로 발견하고 다룰 수 있다면 역동적으로 상담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기적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타자(他者)인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에 대한 발견은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불교적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낸 참 자아(빌립보서 3:9)에 관한 신앙과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좋은 상담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는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핵심감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8~9)

정을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돌아보는 일을 일상에서 지속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 느끼는 핵심감정을 시발점으로 자신의 인생 구석구석을 구체적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둘러보고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시선에 좋은 나로 ‘재형성’되는 것(고린도후서 5:17)입니다.

포커싱(Focusing)

많은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한 인간에 대한 ‘영·혼·육’의 설명적 용어의 영향 때문에, 사람을 삼분법적 이해에 따라 ‘영>혼>육’이라고 규정하여 ‘몸’을 하찮게 여기는 왜곡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곤충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전인(全人)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형상(창세기 1:27)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의 존재를 담고 있는 통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통해 자신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문제를 스스로 치유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상담자가 자신을 이해한 상태에서 내담자와 공감할 수 있는 상담법이 ‘포커싱(Focusing)’입니다.

우선 포커싱은 자신의 몸에 집중하여 본인이 느끼는 것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

로’ 느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담의 자리에서 다루어지는 내면의 특정한 문제를, 연결된 느낌이나 감각 느낌(felt sense)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한 신체 자각과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는 포커싱을 통해 변화의 모든 것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치유와 회복의 근본적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 과정에서 몸 일부의 통증이 완화되거나 긴장감이 해소되는 감각을 통해서 몸의 변환 이유와 그 의미를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상담하면서 찾는 것입니다.

상담자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가조차도 내담자와의 만남에 있어 여전히 부족함이나 난감함으로 여기는 것이 상담 자리에서의 공감에 관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한 촉매제로 핵심감정과 포커싱을 통한 내면의 훈련과 상담적 적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수많은 상담의 기술과 도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자아를 발견해가고,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실제적인 삶을 공유하는 실천 외에 상담의 왕도는 없음을 명랑상담을 함께 하는 모든 상담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랑상담! **만남**

부르신 이유 (A higher calling)

추석을 맞아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가정예배 드리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이번에도 그 소망은 미뤄졌습니다. 아쉬움 속에, 5대에 걸쳐 우리 가족을 영락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제작년 여름 돌아가신 할아버지(김신경 장로)께서는 식사 기도를 하실 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끝날 것 같던 기도는 이복의 본 적 없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배가 고파서 얼른 밥을 먹고 싶었던 어린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거창한 기도였습니다.

이 글을 쓰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에 쓰러지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증조부부터 제 딸에 이르기까지 5대에 이르도록 믿음의 유산을 견고하게 이어가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증조부께서는 평양 교회의 마룻바닥에 엎드려 ‘아바디 아바디’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서 ‘아바

디 장로’로 불리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6·25 때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공산당의 강제 징집을 거부하시던 증조부께서 8남매 중 장남인 할아버지만 홀로 떠나보내시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I have two hands.”(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신 워딩 그대로입니다.)

증조부는 다시는 아들을 만나지 못할 것을 예감이라도 하셨을까요? 감히 짐작건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두 손 있으니 그것으로 살아라.’라는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요게벳의 노래처럼 말이죠.

그렇게 할아버지는 증조부의 작별 인사를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이 주신 두 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남에서 힘들 때마다 믿음과 두 손으로 버티셨고 정처 없고 외로울 때 이복을 바라보며 이 찬양으로 주님을 의지하셨다고 합니다.

‘멀리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하소서 아멘’

(찬송가 387장)



김현우 집사
고양·파주교구

당신의 힘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고백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 또한 어려운 일을 겪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기 때문



할아버지(앞줄 왼쪽) 생전에 4대가 함께했던 모습.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이어오신 증조부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이어 저의 세대까지 주님을 믿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부르심은 곧 소명(calling)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다는 것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를 향한 무한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김태영 장로)까지 이어온 3대 장로의 계보에 감사드리며, 더욱 크게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6대, 7대에 걸쳐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일도 물론 중요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

루는 데에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믿음은 삶으로 보이고 무릎 기도로 이어진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증조부로부터의 무릎 기도가 쌓여서 19개월인 제 딸에게까지 모태 신앙인으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며 나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선한 일을 위해 애쓰며,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에 힘쓰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사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는 우리 가정의 황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가족의 뿌리를 생각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에 겸허해지는 하루입니다. **만남**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

“햇빛 많이 쬐고 운동하세요”

골다공증(骨多孔症)이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칼슘이 급격히 감소해서 정상적인 뼈와 비교할 때 골밀도가 낮아져 ‘구멍이 숭숭 난 뼈’를 말합니다. 폐경, 노화, 뼈에 해로운 약물이나 생활 습관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뼈의 강도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여성호르몬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갱년기에 접어든 여성의 약 60% 정도에서 발생하는 1형 골다공증과 우리 몸의 노화로 인한 전반적 대사작용의 저하로 인해 생기는 2형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폐경이나 노화와 같이 자연스런 인체 주기의 변화에 따른 일차성 골다공증과 특정 약물이나 질환 등에

의한 이차성 골다공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경우 관련된 원인을 반드시 찾아 교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요통, 허리 구부러짐, 신장(身長) 감소, 전신쇠약, 무기력 등에 시달리게 되고, 골절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이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급증하게 되는 등 골다공증은 소리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건강 장수의 훼방꾼입니다.

골다공증의 위험인자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연령의 증가, 고령

성별: 여성

체형과 비만: 뼈가 가늘고 체중이 적은 경우, 극단적으로 비만한 경우

성호르몬의 감소:

- 자연적 혹은 수술에 의한 난소기능의 상실로 조기폐경 된 경우
- 신경성 식욕부진이나 심한 육체적 운동 등으로 월경이 소실된 경우
- 남성의 경우 고환기능의 약화로 남성호르몬이 감소된 경우

약물사용: 부신피질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등의 약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질병: 갑상선기능항진증, 위장관의 수술을 받은 경우

부신피질 호르몬이 증가된 쿠싱증후군, 오랫동안 운동이 억제된 경우

생활습관: 칼슘 섭취량이 적은 경우,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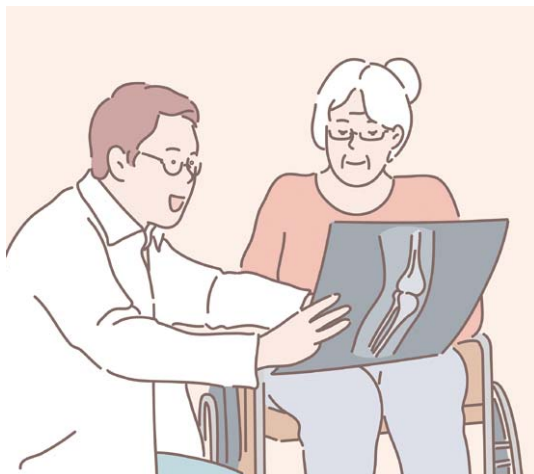
지나친 음주와 흡연 및 무리한 다이어트,

지속적으로 앉아서 지내는 생활, 과도한 커피

골다공증의 가족력



이시훈 집사
서초교구, 의료선교부
가천의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모든 사람에게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골다공증의 위험인자 중 생활습관 등 교정할 수 있는 것을 교정하면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와 골다공증

우리의 뼈는 평생을 두고 뼈의 흡수와 생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갱년기가 되면 골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 호르몬이 더이상 난소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골교체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파골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녹인 부위를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만들어 충분히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골소실이 오면서 골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갱년기가 되면 뼈가 흡수되는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지만, 뼈를 생성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게 되어 뼈가 녹는 속도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에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의 뼈가 우리 몸에서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뼈가 최대 골량에 도달하는 시기는 30대이고, 그 이후에는 점차 골소실이 오게 됩니다. 남성

의 경우는 골밀도가 서서히 떨어져 최대 골량의 20~30% 정도 골소실이 오는데 반해, 여성의 경우에는 50대 즉, 갱년기 이후 10년 정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떨어지므로 여성의 경우 갱년기 동안에 남성보다 더 빨리, 그리고 심하게 골다공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고령이 심화되면 신체노화에 의해 남녀 모두 골다공증이 진행됩니다.

골다공증의 예방

골다공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뼈의 생성이 가장 왕성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뼈의 양을 최대한 높여서 최대 골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기와 청년기에 운동 부족과 과도한 다이어트 등이 가장 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년기에는 뼈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피하고, 꾸준히 운동하여 뼈의 흡수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칼슘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햇빛 쏘이기. 그리고 술, 담배, 커피 등을 줄이고, 정기 검진을 통해 골다공증에 대해 조기 진단을 하고, 일단 골다공증으로 진단 되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골다공증의 치료

골다공증의 치료 목표는 감소한 골밀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골절을 예방하여 스스로 움직이고 거동할 수 있는 데에 있습니다. 칼슘이나 비타민D 보충, 운동과 같은 비약물요법은 골다공증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골밀도의 감소나 뼈가 부러지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

적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치료방법입니다.

1. 약물치료

골다공증 치료제는 뼈가 흡수되는 것을 막는 골흡수억제제와 새로운 뼈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골생성 촉진제로 크게 나뉘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제로 인정된 약물은 여성호르몬, 비스포스포네이트, 랄록시펜, 데노수맙 등의 골흡수억제제와 테리파라티드, 아발로파라티드, 로모소주맙 등의 골형성 촉진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제이든 자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꾸준히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2. 식이요법

꾸준한 칼슘 섭취는 골다공증의 예방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두부, 우유, 치즈, 요구르트, 멸치, 굴, 조개, 깨 등이며 얼마간의 야채의 섭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칼슘섭취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면 칼슘보급제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도 칼슘섭취를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짜게 먹으면 소변을 통해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음식을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에 좋은 역할을 하는 물질로는 비타민 D가 있으며, 이는 식품 이외에도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로부터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타민D를 필요 이상으로 과량 섭취하면 칼슘혈증과 고칼슘뇨로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처방과 상의하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3. 운동요법

뼈의 생성에는 물리적인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육을 움직여서 뼈에 무게를 주는 체중부하운동이 좋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하는 우주비행사에게 골다공증이 쉽게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나 조깅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광욕도 겸하게 되므로 비타민D를 생성하는 치료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줄넘기, 등산 등을 권할 수 있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들은 격렬한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골절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뼈와 근육은 늘 깊은 상호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21세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금 골다공증은 심뇌혈관 질환, 당뇨병, 퇴행성 뇌질환에 이어 가장 중요한 노년 질환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발생하면 스스로 움직이는 건강하고 삶의 질이 높은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짐이 됩니다. 또한 현재로서는 치료제의 효과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거나 종합검진을 받고 나서 우연히 골다공증을 진단받게 되거나,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골다공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비교적 간단한 골밀도 측정으로 골다공증의 진단이 조기에 쉽게 가능하고, 이러한 결과에 따라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평소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식이를 유지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인자가 많은 성도님들은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남**



노래로 하는 경건 훈련

“음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음악에 무지한 신학생 있다면 목사로 세우지 마십시오.”

루터가 여타 종교개혁자들에 비해 관대했던(?) 부분은 음악이었다. 칼뱅이나 츠빙글리는 음악의 무분별한 사용을 경계하며 많은 제한을 두었지만, 루터는 관대하다 못해 기존 가톨릭교회보다 더욱 적극적인 음악의 사용을 권장하여, 예배 시간에 침묵하던 성도들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10월의 성가 산책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의 이야기와 여전히 개혁의 길을 함께 했던 찬송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종교개혁(1517) 100년 후, 독일의 성도들 앞에는 평화로운 신앙생활이 아닌 30년 전쟁(1618~1648)이라는 끔찍한 현실이 다가왔다. 온갖 정치와 종교적 쟁점에 얽힌 여러 나라의 무력이 독일 땅에서 뒤엉켰고, 이에 따라 독일은 인구의 30%가 감소했는데, 남자만 본다면 전체 남자의 거의 절반이 죽은 것이다. 독일은 이후 150년 가까이 유럽에서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유럽 사회에서 다방면으로 변혁을 이끌었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 큰 그림을 볼 때, 더군다나 개혁 1세대에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다. 신앙의 자유를 얻기는 했으나, 가톨릭교회의 견제로 인해 교리 논쟁에서 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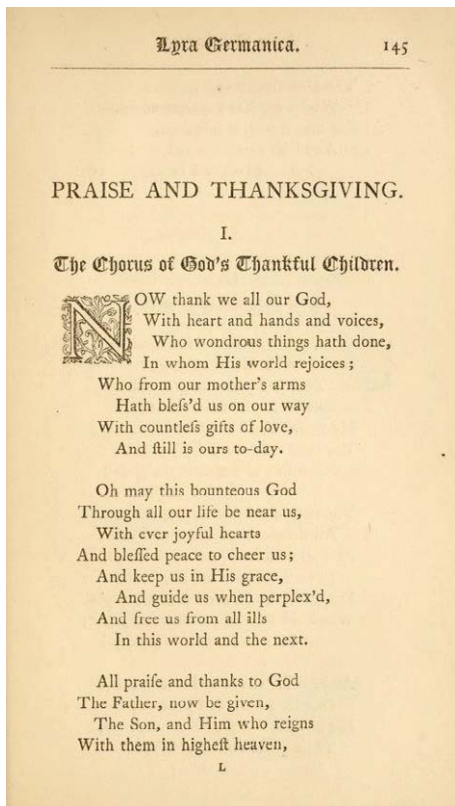
어날 수 없었고, 자신의 교파 자체의 존립에 몰두한 나머지 개혁교회끼리 서로를 견제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이게 된다. 당시 루터가 친구 게오르크 슈팔라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개혁교회의 취약했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데, 그는 “예전에는 일반 신자들이 교황을 우습게 여겼지만, 이제는 우리 목사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현실”이라며 부패한 교회에 대해 탄식했다. 교회는 정치적 계산으로 인한 종교 간의 갈등으로, 피폐해진 성도들의 힘든 삶을 외면한 채 교리만을 강조했고, 그 결과 독일의 성도들은 30년 전쟁이라는 끔찍한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완의 종교개혁을 완수하고자 시작한 운동이 바로 ‘경건주의(Pietism) 운동’으로서, 이들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영적 제사장임을 깨달으며,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강조했으며, 신학 논쟁을 삼가고 사랑으로 관용하도록 가르치는 등 교리 안에 갇혀있던 정통파의 신앙에 경종을 울리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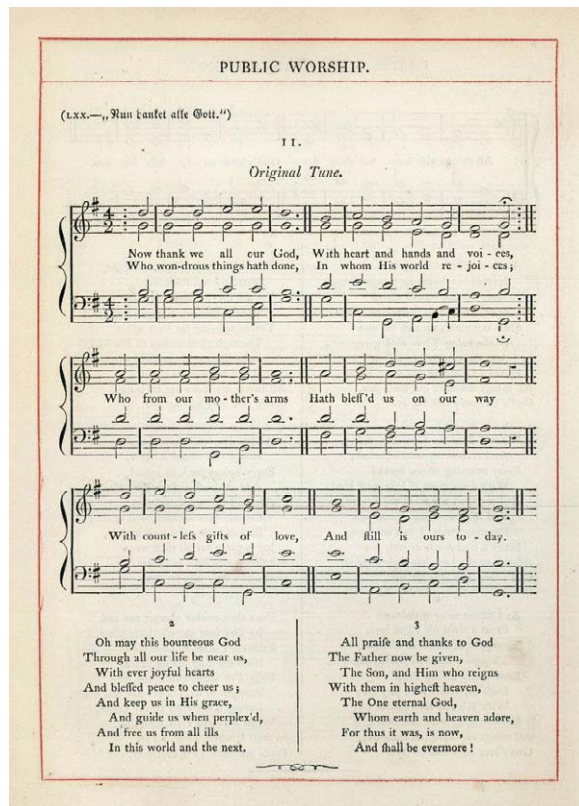
다시 30년 전쟁을 살펴보자. 루터교 목사인 마르틴 린카르트(Martin Rinkart, 1586~1649)는 30년 전쟁의 시작과 함



백정진 집사
마포·영등포교구
베들레헴찬양대 지휘자



『독일의 비파(Lyra Germanica, 1865)』에 소개된
“다 감사드리세 (Now thank we all our God)”



『영국교회를 위한 독일 찬송(The Chorale Book for England, 1868)』에
수록된 “다 감사드리세”

께 작센주(州)의 아일렌부르크(Eilenburg)로 부임했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도시 아일렌부르크는 정치와 전쟁 난민들의 피난처이자 은신처가 되었으나 곧 도시는 인구 과밀로 인해 역병과 기근에 시달린다. 그 과정에 세 차례의 군대 침략도 있었다. 린카르트 목사는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에 여유가 없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기 집을 안식처로 제공했다. 1637년 역병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린카르트 목사는 아일렌부르크에서 생존하고 있던 유일한 성직자였기에, 하루에 최대 50여 회의 장례예배를 집례한 적도 있었다. 그해 4,000회 이상의 장례예배를 집례했는데, 그 안에는 아내의 장례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린카르트는 수많은 찬송시를 남겼는데 그중 우리에게 전해지는 찬송이 “다 감사드리세(66장)”로서 “식사 기도(Tisch-Gebetein)”라는 제목으로, 역병이 극한으로 치달던 1636년에 출판되었다. 이 찬송은 30년 전쟁의 끝을 알리는 베스트팔렌 조약(1648)의 때까지 널리 불렸으며, 지금도 루터 교회에서는 예배의 마침찬송으로 노래하고 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맘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the hymn "다 찬양하여라" (Lobe den Herren). The main score is for three parts (1. 다 찬양 하 여라, 2. 다 찬양 하 여라, 3. 다 찬양 하 여라) with lyrics in Korean. The title "다 찬양하여라" is at the top. Below it, the text "LOBE DEN HERREN: 14. 14. 4. 7. 8." is written. The score is attributed to J. Neander, 1680, and is from the Chorale Book for England, 1864. A circular inset on the right shows a detail of the melody, with the text "LOBE DEN HERREN: 14. 14. 4. 7. 8." and "Arr. in Praxis Pietatis melica, 1668" written above it.

『통일찬송가(1983)』에 수록된 21장 “다 찬양하여라”에는 『노래로 하는 경건의 훈련(Praxis Pietatis melica)』과 『영국교회를 위한 독일 찬송(The Chorale Book for England)』에 대한 출처가 모두 명시되어 있어 이 찬송의 뿌리를 알 수 있다.

찬송시의 첫 출판 이후, 요한 크뤼거(Johann Crüger, 1598~1662)가 곡을 붙여 『노래로 하는 경건의 훈련(Praxis pietatis melica, 1647)』이라는 제목의 찬송가집에 수록했다. 이 찬송집은 17세기 루터교 찬송가 중 가장 성공적이고 널리 알려진 찬송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주는 귀한 보배(81장)’, ‘귀하신 예수(152장)’, ‘다 찬양하여라 (21장)’ 등이 이 찬송집에 수록되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래로 하는 경건의 훈련』이 바로 ‘경건주의 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찬송이다.

경건주의 운동은 사회적으로는 계몽주의 운동으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후에 우리가 잘 아는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 조지 뮐러와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폭풍우 속에서 찬송하던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은 웨슬리는 이후 회심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모라비아 교인들의 리더가 경건주의 운동 2세대인 진젠도르프 백작이었다. 웨슬리는 이들의 노래를 영어로 번역하여 감리교 찬송에 소개한다. 이후 19세기에 『노래로 하는 경건의 훈련』에 수록된 찬송 대다수가 『독일의 비파(Lyra

Germanica, 1855)』와 『영국교회를 위한 독일찬송(the Chorale Book for England, 1861)』 등의 찬송집을 통해 영어로 번역되면서 영국찬송의 황금기로 이어진다.

개혁은 루터 시대에 완결된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내내 진행형이었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 역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을 외쳤다. 역설적이게도 개혁교회 안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었던 경건주의의 물결이 찬송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독일에서 영국으로, 루터교회에서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로 전파되어 국적과 교파, 교리를 뛰어넘었다는 점은 루터가 애초에 강조했던, “음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루터의 ‘내 주는 강한 성이요’가 부패한 교회를 향한 종교개혁의 신포탄이었다면, 린카르트와 크뤼거의 ‘다 감사드리세’는 전쟁이라는 절망의 한 복판에서 성도들의 아픔을 보듬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함으로써, 종교전쟁이라는 폭풍의 시대라는 한 단락을 마무리했던 또 하나의 강력한 종교개혁 찬송이었다. **▶▶▶**

새한글성경 신약·시편 소개

젊은 세대의 언어와 존대법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는 최초의 우리말 번역 성경이 나온 지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중국에 파송되었던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존 로스 목사님과 그의 동역자들이 1882년에 만주에서 번역한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입니다. 이때 로스 목사님은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순수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는 하셨지만, 당시의 한글은 아직 일반 언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여전히 한자가 더 존중되고 한글은 ‘언문’이라 하여 천대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스 목사님은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던 조선 백성들에게 빛과 생명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면서,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읽고 이해하며 배울 수 있도록

순수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번역된 한글 성경이 널리 보급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성경에 기초를 둔 그리스도교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글 성경 번역은 한글과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오늘날 존용되고 있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은 성경 번역이 진행되면서 갖추어진 성경 철자법과 맞춤법을 기초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당시 문맹 상태에 있던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배우면서 문명의 세계로 나가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글 성경 번역은 우리나라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획기적인 사건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을 넘어서서 한글과 우리나라 문화 전체에 크게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글날이 들어 있는 10월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자랑스럽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존 로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말 성경 번역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하면서 최초의 우리말 성경 번역 140주년을 앞둔 2021년 11월에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을 새롭게 번역 출간했습니다. 이에 『새한글성경』을 새롭게 번역하게 된 취지와 특징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두희 목사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 소장

1. 21세기 디지털 세대 위한 새로운 번역 성경

오랫동안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년)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해 오신 성도님들은 새로운 성경의 출간 이유를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현재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통해 한국교회는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했고,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님은 이 성경을 읽으며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옛 문체나 어려운 한자어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에 남아 있어서, 젊은 세대들이 다가가기에는 다소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언어 사용이나 독서 습관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자 매체의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이 더욱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지향하여 새롭게 번역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성서공회는 2011년 9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새한글성경』의 번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와 독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성서학의 발전을 고려한 새로운 번역과 개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 짧은 문장, 다양한 존대법

『새한글성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문장을 최대 16어절 50글자가 넘지 않도록 짧게 번역했습니다. 한 문장에 하나의 정보를 담아 전달하면서 독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통해 읽기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존대법을 반영했으며, 문장의 ‘종결형’을 다양화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상황이 다양합니다. 때로는 대중들을 향해 설교하시고, 때로는 제자들과만 말씀을 나누시고, 때로는 종교지도자들과 논쟁하십니다. 그때마다 문장의 마침표에 변화를 주어 각 상황에 맞도록 번역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하십시오체’를, 제자들에게는 ‘해요체’를, 종교지도자들과 논쟁적 대화를 하실 때에는 ‘하오체’를 쓰시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엄청난 사람 사랑과 존중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새한글성경, 요한복음 3:16)

3. 고유 명사의 새로운 음역과 현대 도량형

요즘 젊은이의 경우에, 교과서나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인지명과 성경에서 사용하는 인지명의 표기법이 같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때로는 음역의 차이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들을 마치 소설 속 이야기처럼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한글성경』에서는 인지명 등 고유 명사의 음역을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용례에 맞추어 일부 수정했습니다. ‘아덴’을 ‘아테네’로, ‘애굽’을 ‘이집트’로, ‘아볼로’를 ‘아폴로’로, ‘도마’를 ‘토마스’로 바꾼 것이



그 예입니다. 『새한글성경』에서는 또한 옛 도량형이나 시간 표현을 현대 단위로 바꾸어 번역했습니다. ‘백말’이라고 했던 것을 ‘2,200리터쯤’으로 한다든지(누가복음 16:6), ‘제구시’라고 했던 것을 ‘오후 3시’로 하여(누가복음 23:44) 현대 독자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4. 아라비아 숫자와 문장 부호

『새한글성경』 번역자들은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읽도록 도울수 있을까를 많이 고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시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라비아 숫자의 사용입니다. 위의 도량형과 시간 표현의 번역

보기에서 볼 수 있듯, 단위의 현대적 표기 방법으로 아라비아 숫자를 도입했습니다. 공동으로 소리 내어 읽을 때 혼동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아라비아 숫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장 부호의 활용입니다. 문장 부호가 없는 성경에서는 대화문이나 인용문이 나올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문장 부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대화문에서 인용 부호를 사용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내용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대화나 내려티브(줄거리)의 흐름을 쉽게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5. 문학 갈래의 특징을 살린 번역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은 산문과는 달리 ‘시’입니다. 시의 특징을 고려하여 시편 편집에는 ‘행같이 (줄바꾸기)’를 사용했습니다. 산문처럼 쪽 이어서 적지 않고, 시행을 구분하여 행간이를 함으로써 시 형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는 독특한 어순의 사용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느낌과 강조점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번역에서도 잘 전해지도록 시편에서는 원문의 도치문을 번역문에서도 그대로 살리고자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리아의 찬양’(누가복음 2장), ‘그리스도님 찬양’(빌립보서 2장) 등 운문이 나올 때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시 형식에 주안점을 두고 번역하고 편집했습니다. 그 외에 서신서의 경우에도 해당 문학의 갈래가 복음서와 다른 점을 고려하여 번역 문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6.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갖춘 온라인 버전

이번에는 우선 번역 본문만 공개했지만, 『새한글성경』은 앞으로 준비가 되는 대로 온라인 버전으로도 보급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버전에서는 분량 제한 없이 성경 읽기에 참고가 되는 그림, 사진, 지도, 동영상과 고고학 관련 자료들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7. 다른 번역본과 비교하며 활용하기 좋은 성경

『새한글성경』은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대체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과 병행하여 활용하기 좋습니다. 두 번역본의 표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어느 하나가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문을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두루 생각하면서 본문 이해의 폭을 넓히게 해줍니다.

8. 소리 내어 읽기 좋은 성경

『새한글성경』은 소리 내어 읽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책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읽어 주고, 다른 사람들은 함께 듣는 방식으로 성경 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코이네 그리스어’는 구어체 일상 그리스어입니다. 이런 원문의 특징을 살려 구어체나 약간 가벼운 문체도 번역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눈으로만 읽을 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소리 내어 읽는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읽힐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2023년 말까지 구약까지 포함한 『새한글성경』 완역판 출간을 목표로, 현재 구약 번역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버전에 덧붙일 설명 자료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한글성경』이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과 더불어 한국교회 전체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젊은이들이 신앙의 대를 잇게 하는 귀한 통로로 잘 사용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대동강변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

우리 교회는 창세기의 문화명령(1:28)에 따라 문화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바탕으로 기독교문화의 올바른 전승과 발전을 꾀하는 기독교문화선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창작 뮤지컬을 제작, 공연하는 위트니스팀은 1998년 3월 창단 후 창작뮤지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처음 무대에 올린 뒤 〈아리마대 요셉〉 〈기쁜 소식 - 바울〉 〈아름다운 초대〉 〈한경직〉 등 여러 편의 창작 뮤지컬로 선교에 앞장서왔다.

오는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선교대회 중 문화선교축제에서 3년 전 초연했던 창작뮤지컬 〈평양 1866〉을 무대에 올린다. 한국사 과목에서 한번은 들어봤을 ‘제네럴셔먼호 사건’이 이 공연의 배경이다. 통역으로 함께 왔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와 그의 죽음이 맺은 신앙의 열매를 보여주는 이 작품은 위트니스팀 안동현 청년이 대본을 쓰고 박준영 집사가 연출, 최민희 집사가 작곡과 음악 감독을 맡았다.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연습에 땀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번 무대가 갖는 의미를 들었다.



베다니홀에서 연습 중인 〈평양, 1866〉 뮤지컬

- 〈평양, 1866〉은 나에게 이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박준영: ‘한 알의 밀알’입니다.

최민희: ‘회복’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와 전쟁과 기근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길이 막히고 복음전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때, 토마스 선교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평양 1866〉이 많은 분께 다시금 믿음의 회복, 복음의 회복으로 전해지기를 소

망합니다.

안동현: ‘기도’입니다. 1866년의 조선은 서양인과 기독교인에게는 무척이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토마스는 60년 전 조선에서 프랑스 신부와 수많은 조선의 천주교인이 처형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곳으로 오기를 결단했습니다. 결단의 시간 속에서 그가 했을 기도가 궁금했습니다. 죽음을 당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께 올렸을 기도 역시 궁금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신앙인의 숭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1866년 평양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2022년 서울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제너럴서면호가 불타고 선원들이 몰살되고 무고한 조선의 백성까지 사망했던 파국은 그의 원래 목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동강 모래밭에 떨어진 밀알 하나로 썩어, 지금 수 천 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마스가 설우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설우가 복음을 받아들인 설정을 작품에 넣었어요.

발터 니그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좌초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신념과 행동은 세상에서 좌절되기 십상이고, 그의 뜻과는 다른 파국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는 이처럼 기도하고 결단하고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박: 토마스 선교사님과 그 외 이름없는 수많은 선교사님의 순교와 헌신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존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기도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단 한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사람 매번 창작의 고통과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무대위 주님의 도구로서 단 한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때를 알 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확신하고 순종하며 나아

갈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때 일지라도 1866년 평양에서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회복이 전 세계 각 나라와 각 교회와 각 사람과 모든 선교현장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 기독교적인 이상은 광폭하고 부조리한 세상에 불화를 일으킵니다. 토마스가 가지고 있던 “야소는 메시아다”라는 사상은 강력한 유교질서와 서양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가 강했던 조선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광폭함과 인간의 결함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토마스의 계획은 무너지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영광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와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지금 우리들이 묵상하고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 세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위트니스팀과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 대학로 극단에서 배우로 20여년 연극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배우 생활을 하며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듯 뮤지컬 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화사역을 위해 배우가 된 것인지 배우경력 때문에 문화 사역을 하게 된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겠지만 ...

최: 찬양사역자로서 찬양간증집회, 영등포역광장 찬양전도집회와 NPBS경찰방송, 소년원 사역 등 여러 찬양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으로, 남편은 문화사역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각자 봉사하는 곳이 달라 아이를 돌보기가 어



려웠어요. 그래서 위트니스에서 먼저 섬기고 있던 남편을 따라 자연스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트니스팀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둘째아이가 뱃속에 있을 무렵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흔들침대를 들고 다니며, 두 아이의 내복과 치솔을 싸가지고 늦은 밤 연습이 끝나면 기념관 1층 화장실에서 씻겨서 집에 가던 날들이 참 많았는데, 어느새 좋은 추억이 되고 두 아들이 중학생이 되어 위트니스의 스태프로 무거운 장비도 함께 옮겨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동역함이 참으로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안: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고, 지금 방송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극과 드라마, 저널리즘 등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군대 전역 후, 당시 위트니스 팀



에서 연출로 활동하시던 임주현 선생님께서 함께 해보자고 하셔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팀 활동을 이끄시던 유혜정 권사님께 극작을 배웠습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를 통해 위트니스 팀에 들어오게 됐고, 신앙 뿐 아니라 제가 꿈꾸어 왔던 드라마와 뮤지컬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깊이 있게 발전시킬 수 있게 된 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에 강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문화선교-뮤지컬을 통한 선교 활동의 비전은 무엇인지요. 또 교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 코로나 팬데믹과 빠르게 변해가는 문화의 흐름으로 인해 콘텐츠 제작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상과 미디어에 달란트를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영상팀도 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뮤지컬 영상을 콘텐츠로 만들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많은 분께 선교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박: 위트니스는 목격자, 증언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알게 된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언하고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관객이 공연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증언할 수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타 교회, 병원, 소년원 학교 등 다양한 곳을 찾아가는 공연도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공연을 관람하거나 직접 만들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많은 곳을 찾아가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문화사역들이 그렇지만 한 번의 무대가 (공연이) 오르기까지 수많은 시간, 수많은 인원의 수고와 헌신, 많은 제작비용이 들어갑니다. 공연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사명감을 갖고 헌신할 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안: 위트니스가 더 많은 기독교인, 일반인,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과 드라마, 무대가 있는 뮤지컬은 아름다운 예술의 장르이고, 사람들에게 깊은 메시지와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장르입니다. 저희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면 좋겠습니다.

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습니다. 많은 배우와 여러 전문분야 스태프들이 함께 어우러지기까지 서

로의 다른 의견들과 시행착오로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불가 능해 보였던 것들을 가능케 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공연 준비 중 겪은 감사의 체험을 고백할 때,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을 믿지 않던 친구가 이러한 귀한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삶이 변화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뮤지컬 및 문화사역에 비전을 품고 있는 이들과 청소년들을 향해 그러한 소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 제목이며 비전입니다.

- 세 분 모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달란트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세분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한 결정적인 계기/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세상 속에서 받은 달란트를 키우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요?

박: 전 가장 힘든 시기에 주님을 찾았고 무대 위에서 공연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극 속의 예수님이 되어 대사를 하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서 저의 입을 통해 말씀 전하시는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매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느낄 때마다 더 놀라운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안: 드라마와 연극에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망을 위트니스 팀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큰 감사함으로 여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더욱 진지하게 집중할 수 있을지, 또한 신앙 안에서 올바른 열정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위트니스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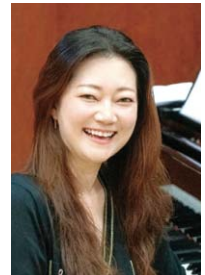
최: 되돌아보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린이 뮤지컬을 경험하고,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장을 맡게 되고, 대학에서 성악 전공 후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회에서 반주자로, 찬양팀으로 섬겼던 모든 과정들이 지금 뮤지컬 음악감독으로 섬기는데 정말 큰 경험과 과정들이었습니다.

또한 14년 전 위트니스에서 음악감독으로 섬기기 전부터 남편과 함께 믿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찬양과 문화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길 함께 기도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 텔런트를 키우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겸손으로 순종할 때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 마지막으로, 작품으로 돌아가볼까요.

〈평양 1866〉에서 내가 가장 주목/공감하는 인물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 〈평양 1866〉 초연에 박춘권 역 배우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연출을 하며 무대 밖에서 바라보는 박춘권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당시의 내가 박춘권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이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평양대부흥을 이끄는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기도가 있었을까? 평양 1866 공연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헌신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과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

최: 저도 박춘권입니다. 작품을 준비하는 초반에는 토마스 선교사의 열매 맺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일고백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박춘권의 모습에 주님 없이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투영되며 더욱 공감하게 됩니다.

안: 저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진리와 변혁에 목말라 있었던 조선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핍박받아온 평양의 백성들 또한 세상의 변화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가상의 인물이 평양감사 박규수의 서녀 설우입니다. 그녀의 적극성과 담대함을 통해 조선의 주체성과 역동성을 표현하길 바랐습니다.

● 작품소개



〈평양 1866〉는 어떤 이야기?

이 작품에는 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영국 출신 토마스 선교사, 평양의 조선군인 박춘권, 평안도 관찰사의 서녀 설우(가상인물)입니다.

미국 상선 제너럴셔먼(General Sherman)호에 통역으로 승선했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1839~1866)는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14세에 옥스퍼드대에 입학허가를 받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 입학 나이를 기다리던 중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런던대학교 뉴칼리지에서 5년 동안 학사 석사를 마치고 아시아 선교를 향해 중국으로 떠납니다.¹ 당시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선교는 말할 것도 없고 통상도 봉쇄되어있던 터라,

선교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통역으로 승선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박춘권 역시 역사 속 실제 인물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스러운 조선 관군으로, 대동강 하류 쪽섬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베어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권에게 성경을 전했다고 하지요. 이후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을 앞두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모습과 성경을 건네던 모습을 잊지 못했고, 1899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마펏 선교사²에게 세례 받은 뒤 영수 직분을 받아 평생토록 교회를 섬겼다³고 합니다.

박춘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여성 설우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훗날 개화파로 이름을 남긴 박규수가 당시 평안도 관찰사로 제너럴서면호를 불태우도록 지휘했는데, 설우를 박규수의 서녀로 설정했습니다. 사람대접 받기 어려운 서녀의 삶을 살면서 설우는 기독교 복음에 눈 뜨고, 자신이 사랑하는 박춘권에게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평양 1866>과 제너럴 서면호 사건

역사 과목을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제너럴서면호 사건이 <평양 1866>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때는 조선 고종 3년. 서구 열강들은 아시아에서 세력 확장을 위한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너럴서면호는 비단·유리그릇·자명종 같은 상품을 싣고 중화기로 무장했습니다. 때마침 밀물을

맞아 21일(음력 7월 12일) 서면호는 만경대 한사정(閑似亭)까지 올라갔고,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던 중군(中軍) 이현익(李玄益)을 붙잡아 감금했습니다. 이에 평양성 내 관민(官民)이 격분하여 강변으로 몰려들자 서면호는 소총과 대포를 쏘아 평양 사람 5명이 죽고 7명이 다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의 지휘 하에 배는 불태워지고 배에서 탈출한 선장과 토마스 선교사 등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만남**

<주요 스태프 및 출연진>

제작 총괄: 신승기

연출: 박준영

작곡 및 음악감독: 최민희

극작: 안동현

각색 및 가사: 유혜정

영상 편집: 이영주

분장: 이선경·임송아

의상 소품: 이승원

무대조명: 승민성

음향효과: 최지원

안무: 오유나

출연: 토마스선교사-이재영, 박춘권-이영록,
설우-차은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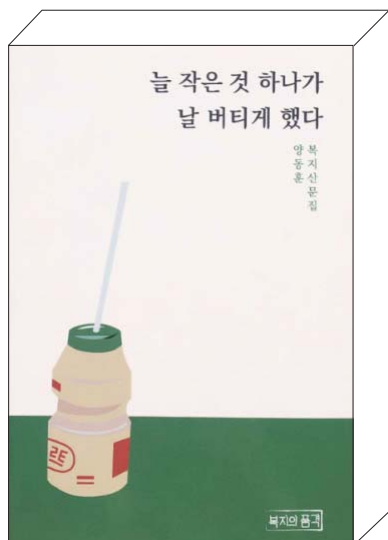
편집부

1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 유해석 저, 창조의 작은 언덕

2 미국 북장로교가 파송한 선교사로 1890년 조선에 도착, 2차 전도여행을 통해 1893 평양에 첫 번째 교회인 널다리 교회를 세웠고 1899년 장대현 교회를 설립했다.

3 『한국교회사 이야기』 신세원 저

늘 작은 것 하나가 날 버티게 했다



양동훈 지음 / 복지의 품격 / 2021년

저자 양동훈 작가는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8년 동안 모아 온 이야기들을 고르고 골라 이 책을 냈습니다. 복지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복지 관련 서적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고 그저 소소하고 따뜻하며 행복한 이야기들을 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복지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그저 사람 사는 세상에서 배려를 주고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심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관한 고민과 타인의 작은 고백과 행동들을 통해 알게 된 깨달음 같은 것들이 소중하게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서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이 책이 복지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람들 모두가 공감할만하다는 것은 책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부터 오늘까지 17년 동안 교역자로 사역해 오면서,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한 것 역시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지와 교회에서의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가 그럴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누군가 계속 버틸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어찌 보면 작은 배려가 담긴 한마디의 말, 진심을 담은 요구르트 한 병, 친절하 인사 한마디, 혹은 용기를 얻게 해 준 선배의 지나가는 한마디 같은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날 버티게 해 주었다는 것도 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 자신을 버티게 한 것은 무엇인지, 또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버틸 힘이 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재영 목사
영락기도원

〈옆집 아저씨의 한마디〉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구든 자신의 현관과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거리가 있는 주차장 외각에는 주차할 공간이 비어있음에도 굳이 현관 가까이에 있는 장애인 주차 공간을 탐내거나, 그 앞을 가로막거나, 또는 현관으로 연결되는 중앙통로에 굳이 비집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느지막한 퇴근길에 장애인 주차 공간 옆 통로에 꾸역꾸역 차를 집어넣고 있는 승용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창문을 두드려 한마디 해 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편한 마음을 삼킨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야 주차에 성공했는지 아주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로 걸어오면서 투덜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쩔 이렇게 주차할 곳이 없지?”

어떤 용기가 났는지 제가 침착하고 정중한 어투로 말을 건넵니다.

“아주머니, 바깥쪽에는 자리가 많던데요? 저도 지금 거기에 주차하고 걸어오는 길이에요. 혹시 우리 동네 휠체어 탄 분이라도 계시면, 만약 아주머니 차 때문에 못 들어오면 어떡해요?”

제 말을 듣고 머쓱해진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아저씨 말이 맞지? 내 금방 차 옮겨 놓고 올게!”

종종걸음으로 다시 주차장으로 향하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용기 내어 건넨 한 마디가 아주머니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바뀐 것 같아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장애인복지 종사자가 아닌, 옆집 아저씨의 한마디여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찌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복지관의 특별한 교육이나 이벤트가 아닌,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정중한 한마디가 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155쪽 중)

성도님들이 이 책을 읽은 후, 제가 이 책을 통해 새롭게 다짐했던 것처럼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진심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과 행동을 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쓰며, 작은 것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아름다운 노래

참 빛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기쁨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평화 주시고 자유 주시는 힘의 원천이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안내해 주십니다. 제 나이 칠십이 넘어서 수채화를 만난 것은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로 두 해가 넘어가도록 일상생활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가시덤불 가운데 백합화처럼 사랑의 예수님은 나의 손을 꼭 잡고 놓치 않으십니다. 저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고 따르는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남**



유순희 은퇴권사 _ 강남교구

교회소식

권사회, 전교인 성경통독사경회 박지운 목사 진행으로 개최

전교인을 대상으로 성경통독사경회가 권사회(회장 김영하 권사) 주관으로 8월 22일(월)부터 26일(금)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5시 30분까지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교인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통독사경회를 인도한 박지운牧사는 구속사적, 역



사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조망하며, 성경 신·구약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상황들을 잘 설명하여 입체적인 성경통독을 경험하게 했다. 특히, 고대 근동의 일반역사에 대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과 그에 따른 기타 지도, 사진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성경 이야기를 쉽고 현장감 있게 소개하여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5일간 권사회 임원들이 스텝으로 봉사하며 때마다 음료와 간식을 푸짐하게 챙겨주는 섬김의 봉사로 더욱 즐겁게 통독을 마칠 수 있었다고 참석자 모두 감사함을 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예산위원회,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제직부서 회계교육 실시



예산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장로) 주관으로 교회 제직부서 담당 차장, 회계, 및 관련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회계 교육이 지난 9월 18일 주일 오후 1시 기념관 503호에서 실시하였다. 예산위원회 한덕호 안수집사의 인도로 시작한 1부 경건회에서 김동욱 장로의 기도에 이어 ‘함께하심(창세기 39:23)’의 제목으로 김정희

목사의 말씀과 축도가 있었다. 2부 설명회는 준비된 PPT 자료로 2023년 세입·출 예산 편성 안을 발표했다. 2023년 세입예산은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위임목사님의 뜻과 목회 정책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세출 예산은 한정된 세입 예산에서 고정비(인건비, 공과금, 세금, 연료비, 유지관리비 등)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각 제직 부서의 예산안은 2022년 대비 95% 규모로 조정하여 편성하길 바란다고 요청하고 예산 편성시 유의사항을 계정별, 부서별 세부 내용을 공지했다.

이날 교육은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어렵게 한 헌금이므로 실행하지 않는 예산은 삭제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제46회 정책당회 설악수양관에서 열려

2023년 교회의 목회방향을 공유하고 교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도록 정책과 사역을 논의하기 위한 제46회 정책당회가 지난 9월 5일(월)부터 6일(화)까지 양일간 설악수양관에서 열렸다. 첫날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2023년 목회중점과제 및 영락교회창립80주년 비전에 대한 위임목사님의 제언과 설명, 원로·은퇴장로들과의 대화 및 제직부서, 특별위원회, 법인 및 기관들의 사역계획 보고와 토론이 밤늦도록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조찬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일치하는 당회 공동체로 세워짐을 도모하였다. 특별히 이번 정책당회에서 김운성 위임목사는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그 후유증 속에서 예배 회복을 도전하며, 교회의 영적 구조가 시대의 부름에 응하여 변화해야 함과 80주년 비전을 향한 지속적인 전진을 주



문하였다. 2023년 교회 표어는 민수기 9장 23절에 근거하여 “말씀 따라 행진하라”로 선정하였다. 이는 2022년도 표어 “행진하여 가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뜻을 이어가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영락교회가 되어가기를 위한 바람이다.

우리 교회 기증 푸드트럭이 군 장병 선교에 큰 호응 얻어

- 언론에 비친 영락의 선교현장



사진 제공 : 해군평택교회

지난해 10월 3일에 선교부(부장 심재수 장로)와 제2여전도회가 군에 기증한 푸드트럭이 군 장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26일자 국민일보 <미션라이프>는 코로나 팬데믹 선교의 대안으로 병영을 찾아가는 푸드트럭이 “장병들 마음 열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해군 2함대사령부 영내교회인 해군평택교회가 3주간 바다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후 입항한 장병들에게 푸드트럭을 제공했다. 기사는 “장병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음식을 먹으며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어린이처럼 장난을 쳤다. 삭막해 보였던 함대 분위기는 이 트럭의 존재로 일순간 화해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해당 트럭은 단순한 푸드트럭이 아니다. (중략) 지난 2년 여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군선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 없이 가만히 있으면 난관을 뚫기 쉽지 않아 보였다. 이때 해군평택교회는 푸드트럭을 통해 장병들 곁으로 직접 다가간다는 아이디어

어를 도출했다. 이는 그동안 군선교 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며 “선교 방안이 나오자 즉각적으로 일선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서울 영락교회(김운성 목사)는 4500만 원에 달하는 푸드트럭을 후원해줬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푸드트럭 선교는 장병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켰다”며 “함정

근무의 특수성으로 2~3주간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좁은 함정 안에서 불만족스러운 식생활 등으로 지친 (장병들에게) 푸드트럭은 일종의 ‘해방구’가 된다”고 우리 교회가 기증한 푸드트럭이 선교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기사에서 무기지원대대 백건우 상병은 “더운 여름에 임무를 수행하느라 많이 덥고 지쳤는데 군종목사님과 평택해군교회에서 푸드트럭으로 위문 활동을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제2해상전투전단 235편대장 김수민 소령은 “사랑과 정성으로 마련해 주신 음식을 통해 종교를 떠나 모든 부대원들이 큰 힘과 사랑을 느끼고 있다”며 “응원에 힘입어 부대원들이 심기일전해 목숨 바쳐 우리 바다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이러한 군장병 반응을 전하며 푸드트럭이 “군선교 본연의 목적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 2개월간 함대내 교회의 인기가 치솟은 것은 물론, 교계의 선한 이미지도 확산됐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크게 줄었던 예배 참석 인원이 10배 정도 늘었다는 것이다.

한국미디어선교회 <책별 성경공부> 강좌

올해로 설립 40년이 된 초교파 성경 교육단체인 (사)한국미디어선교회 바이블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책별 성경공부>가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저동 영락교회 교육관 4층 예배실에서 진행된다. 본 강좌는 본회 이사장인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담임), 노영상, 조병호,王大일, 최재덕, 송병현, 조광호 유선명 교수 등 성경교육에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강사들이 담당한다. 매주 성경의 한 권씩을 공부하는 과정으로 2년 정도면 성경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했다. 성경 각 책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을 파악하여 이를 통해 각 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시간으로, 목

날짜	담당 교수	1교시 (10:00~11:10)	2교시 (11:20~12:30)
9월 16일	김운성 이사장	개강특강	
9월 23일	노영상 총장	창세기1	창세기2
9월 30일	조병호 원장	사도행전1	사도행전2
10월 7일	王大일 교수	신명기1	신명기2
10월 14일	최재덕 교수	마태복음1	마태복음2
10월 21일	송병현 교수	출애굽기1	출애굽기2
10월 28일	조광호 교수	빌레몬서1	빌레몬서2
11월 4일	유선명 교수	잠언1	잠언 2

회자들이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길 원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다. 수강료는 8주 코스에 10만 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연락처/ 바이블아카데미 이은희 실장, 전화: 02-744-4237, 이메일: kbs3369@hanmail.net)

* 바로 잡습니다

『만남』 9월호 25쪽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전파한 행적은 사도빌립이 아니라 전도자 빌립으로 다수의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서 정정합니다.



1주차
신체의 기쁨 | 최현일 원장 (산부인과)

2주차
마음의 기쁨 | 노은혜 강사 (필라테스)

3주차
가족의 기쁨 | 김숙경 소장 (가족상담)

4주차
영적인 기쁨 | 홍지연 목사 (영락교회)



유니게학교 1단계 임신부학교

제 16기 조이스쿨 온라인 모집

기간: 11월 12일 - 12월 3일(매주 토요일, 4주간)

대상: 예비 엄마, 아빠 및 임신부 누구나

접수: 10월 16일(주일) - 10월 30일(주일), QR코드 접수

등록비: 50,000원(교재 및 활동자료, 선물 포함)

문의: 조이스쿨(02)2280-0338, 010-5409-0719

 영락교회

안순근 원로장으로 별세, 본당에서 교회장으로

안순근 원로장로가 9월 11일(주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1944년 평북 신의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평생 신앙의 삶을 사셨다.

고인은 1965년 교사양성반 수료 후, 대학부 교사를 시작으로 20대에 서리집사, 30대에 안수집사, 40대에 장로로 장립되어 당회원으로, 2015년 1월 1일 원로장으로 추대되어 오랜 세월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다. 1978년 12월 집사안수를 받은 후 청년2부 부장, 사회복지법인 영락원 이사, 갈보리찬양대 대장을 맡았다. 이후 1987년 12월 제20회 시무장로로 장립되어 제2남선교회 회장, 장년부장, 예산 위원장, 대학부장, 당회서기, 장학위원회 위원장, 영락학원 부이사장, 영락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서무부장, 교육부장, 선교부장, 목양부장, 65주년 기념행사 위원회장을 역임하며 2014년 12월까지 시무장로로 섬기셨다. 장례예식은 교회장으로 9월13일(화) 오전 9시30분 본당에서 김운성 목사 집례, 김형찬 목사 인도, 우무정 은퇴장로가 고인을 추모하는 조사,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 오후 12시 장지인 영락공원묘원에서 김형찬 목사의 집례로 하관예식이 있었다. 유가족으로는 2남 진호, 광호와 1녀 진원이 있다.



조사

안순근 장로님!

장로님과의 만남이 벌써 45년이 넘었네요. 교회와 나라가 한창 부흥·성장하던 변화와 격동의 시대에 당신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셨지요.

장로님은 성품이 온화하고 속이 깊고 과묵하며 마음이 여렸고, 이웃을 불쌍히 여긴 따뜻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0대 젊은 시절, 부부와 가족이 함께 하는 <만남선교회>라는 소그룹을 만들어 농촌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후원하셨습니다.

1970년대 후반, 함께 대학부를 섬길 때는 모든 것 제쳐놓고 매년 농촌 현지 봉사에 참여했지요. 형편이 어려워 등록을 포기한 대학생에게 은밀하게 여

러 차례 등록금을 도와주는 등 후견인 역할을 톡톡히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금요철야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대학생과 함께 본당 2층 한쪽 구석에 모여 철야하며 본을 보였고, 회사 신우회 모임에도 학생을 초청하여 견학케 하며 크리스천으로 선교하며 기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졸업생의 사회 진출을 돕기도 하셨습니다.

남선교회가 1남, 2남으로 분리할 때 초대회장으로서 2남선교회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힘을 쏟았고, 기드온 창립회원으로 성경배포에 열심이었으며, 최창근 원로장로님이 설립한 세션회 이사로 김철우 원로장로님과 함께 세계선교, 특히 굳게

단혀있던 중국 선교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셨지요. 또 한경직 목사님의 연합사업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헌신한 쟁쟁한 믿음의 선배들인 최창근, 송성찬, 김락규, 김철우 원로 장로님들과 함께 10인 부부 모임인 ‘이화회’ 멤버로 활동하셨습니다.

시무장로로 섬긴 27년과 은퇴 후에도 우리 영락교회가 선교하는 것은 물론 교회 연합 사역하는 곳에는 늘 장로님은 계셨습니다. 특히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타 교회로 부임하는 부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후원자요 상담자셨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출생하여 선친을 일찍 여의고 그 뜻을 이어 서울 시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중견 교회로 성장했으며 모친 최기빈 권사님에게는 지극한 효자였고 5남매 중 장남으로 형제우애가 남다른 충실한 가장이었지요. 세 자녀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육하여 가정예배를 드리며 그날의 말씀에 이어 매일 잠언을 읽힌다는 말을 들을 때 감동이었고 도전을 받았습시다.

안 장로님!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되는 항암치료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침묵 속에서 세미한 음성 듣기를 갈망하며 투병하는 과정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통증으로 아파하면서도, 평안한 모습은 아름다웠습시다.

지난해 초봄 어느 날, 어려운 부탁을 한다며 매일 기도해주기를 요청받았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저녁

에는 송학승 장로님이, 아침에는 제가 번갈아가며 근 1년이 훨씬 넘게 매일 통화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부르짖던 중 지난 7월 말 갑자기 새삼 나는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매일 기도해주어 새 힘을 얻는다, 재차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송학승 장로와 저에게 감사하다 하며 덧붙이는 말이 마지막 고별 인사하는 것 같아 약간 소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이 무척 많이 아팠습시다. 어느 날은 2년 전에 먼저 천국 간 부인 김창재 권사를 곧 천국에서 만날 것 같다 하며 우리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 다니는 손녀딸이 왔을 때 ‘내가 먼저 천국에 가서 천국잔치를 준비할테니 예수님 잘 믿어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하고 당부했다 합니다. 안 장로는 늘 맑은 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조용하고 차분하게, 천국 갈 준비를 한 듯합니다.

세 자녀 진호, 광호, 진원 내외와 손주들을 말씀대로 잘 양육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명문으로 키운 장로님!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이요,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며 존경과 사랑받는 장로님!

이 땅 삶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바르게 쓰며 사명을 마치고 달려갈 길 마친 안순근 장로님! 이제 천국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으시고,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소서.

사랑하는 친구 안순근 장로님!

그 푸근한 모습이 벌써 많이 그리웁습시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2022. 9. 13.

남은 자를 대표해서 우무정이 조사를 합니다

‘2023 항존직 선거’ 안내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락교회 행정장정 제34조 [항존직 선거] ④항 규정과 당회결의에 따라
장로 20명과 안수집사 20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직한 선거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바랍니다.

■ 선거일정

▶ 후보추천서 접수

9월 25일(주일) 오전 9시 ~ 10월 09일(주일) 오후 4시

▶ 접수 방법 : 이메일/우편 또는 현장 접수 (주일: 9/25, 10/02, 10/09)

▶ 공천후보자 기도회

2022년 10월 30일(주일) 찬양예배 후, 벨엘

▶ 선거일자

본 투표는 후보를 확정된 후 2차에 걸쳐 전산개표방식 투.개표 진행

1차 투표(후보대상) : 2022년 11월 13일 (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2차 투표(1.2배수) : 2022년 11월 20일 (주일) 오전 8시 ~ 오후 4시 20분

■ 투표장소 : 50주년기념관 1층

■ 후보의 선정

1. 장로.안수집사 후보로 추천된 후보자를 당회에서 공천을 하여
선출인원(장로 20인, 안수집사 20인)의 1.5배수를 후보로 선정한다.
2. 2차 투표는 미 선출 인원의 1.2배수로 실시한다.

■ 장로의 선택 (총회헌법 2편 제41조)

장로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 안수집사의 선택 (총회헌법 2편 제54조)

집사의 선택은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김윤재의 함께해보아요

색칠하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 15: 4)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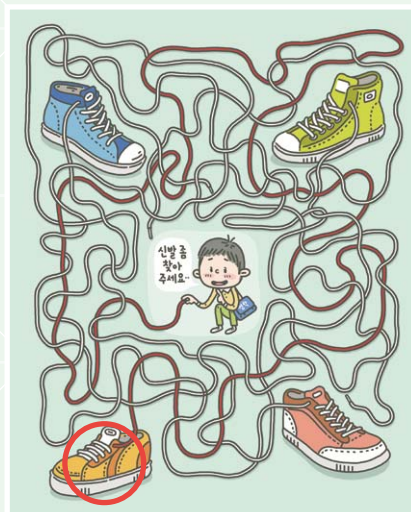
목회력

1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2일(주일)	주일예배 성찬(1~5부)
7일(금)	문화선교축제, 연합권찰공부
9일(주일)	선교주일, 학원선교대회, 고등부·대학부·청년부·자유인·국제예배 성찬, 제직회
12일(수)	선교부흥회, 선교바자회
13일(목)	선교부흥회
14일(금)	선교부흥회, 선교바자회
16일(주일)~ 11월 20일(주일)	하반기 전도캠페인
21일(금)	심방준비회
23일(주일)	사회봉사주일, 아동부찬양제 리틀스타
24일(월)~26일(수)	포이메네스 사모영성수련
30일(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소그룹의 날, 다음세대기도회

※ 10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운재의 함께해보아요

지난호 정답
미로찾기



2022년 10월호 통권 584호

발행 2022. 10.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차영수 김갑수 김경옥 김성수
김효진 나광호 박선이 유혜정
이준영 인 미 임대현 정주리

교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2022년 선교대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비와 산지와 평지와 네겔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신명기 1: 7)

열방으로 행진하라!

2022년 10월 7일 (금) ~ 14일 (금)



안교성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선교 부흥회 12일(수) ~ 14일(금) 오후 7시 본당

문화선교축제 7일(금) 오후 7시 30분 베다니홀
뮤지컬 “평양 1866”

선교주일 9일(주일) 1부 ~ 5부 마당행사
학원선교대회 오후 5시 본당, 고흥욱목사(꿈꾸는교회 담임목사)

수요1부 기도회 12일(수) 오전 10시 30분 본당
조주희 목사 (성암교회 담임목사)

선교특강 13일(목) 오후 1시 드림홀
김정대 군종목사 (중령, 7보병사단 군종참모)
김서영 선교사 (아프리카 잠비아 네트워크선교사)
이수정 대표 (IT-스마트선교사)

선교바자회 12일(수), 14일(금) 베다니광장 / 주관: 여전도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영락화랑

아름다운 노래



유순희, 45×32cm, 수채화, 2021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